



부록 2. EU Solvency II - 주요 특징

- EU Solvency II 지급여력비율 산출(정량평가) 시 주요 특징으로 자산·부채 시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총재무제표방식(total balance sheet approach) 사용, 리스크 중심의 경제적 요구자본 도입 등이 있음(부록 그림 II-1 참고).
 - EU Solvency II는 정량평가(pillar1), 정성평가(pillar2), 공시(pillar3)의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.
 -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가정을 이용하여 자산·부채를 평가하고, 이 때 순자산가치를 가용자본으로 인식함.
 - 자산·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함으로써 잠재적인 리스크에 따른 지급여력 변화를 즉각적으로 측정·인식함.
 - 요구자본을 지급능력요구자본(SCR; Solvency Capital Requirement)⁵⁾과 최소요구자본(MCR; Minimum Capital Requirement)⁶⁾으로 이원화하고 규제를 차별화함.
 -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 SCR에 미달하는 경우 SCR 충족을 위한 시한 및 방법 등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고, MCR에 미달할 경우 인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를 시행함.

5) SCR은 향후 1년 동안 보험회사의 파산확률이 0.5%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목표 자본수준을 의미함.

6) MCR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수준을 의미함.

부록 그림 II-1 EU Solvency II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

